

너를 처음 안았던 날부터

— 군화를 신은 내가 다시 너의 산책길로 돌아왔다 —

유찬과 사랑이의 따뜻한 이야기



이 책은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.



다시 만난 아침

오늘 휴가 나와서 제일 먼저 사랑을 만났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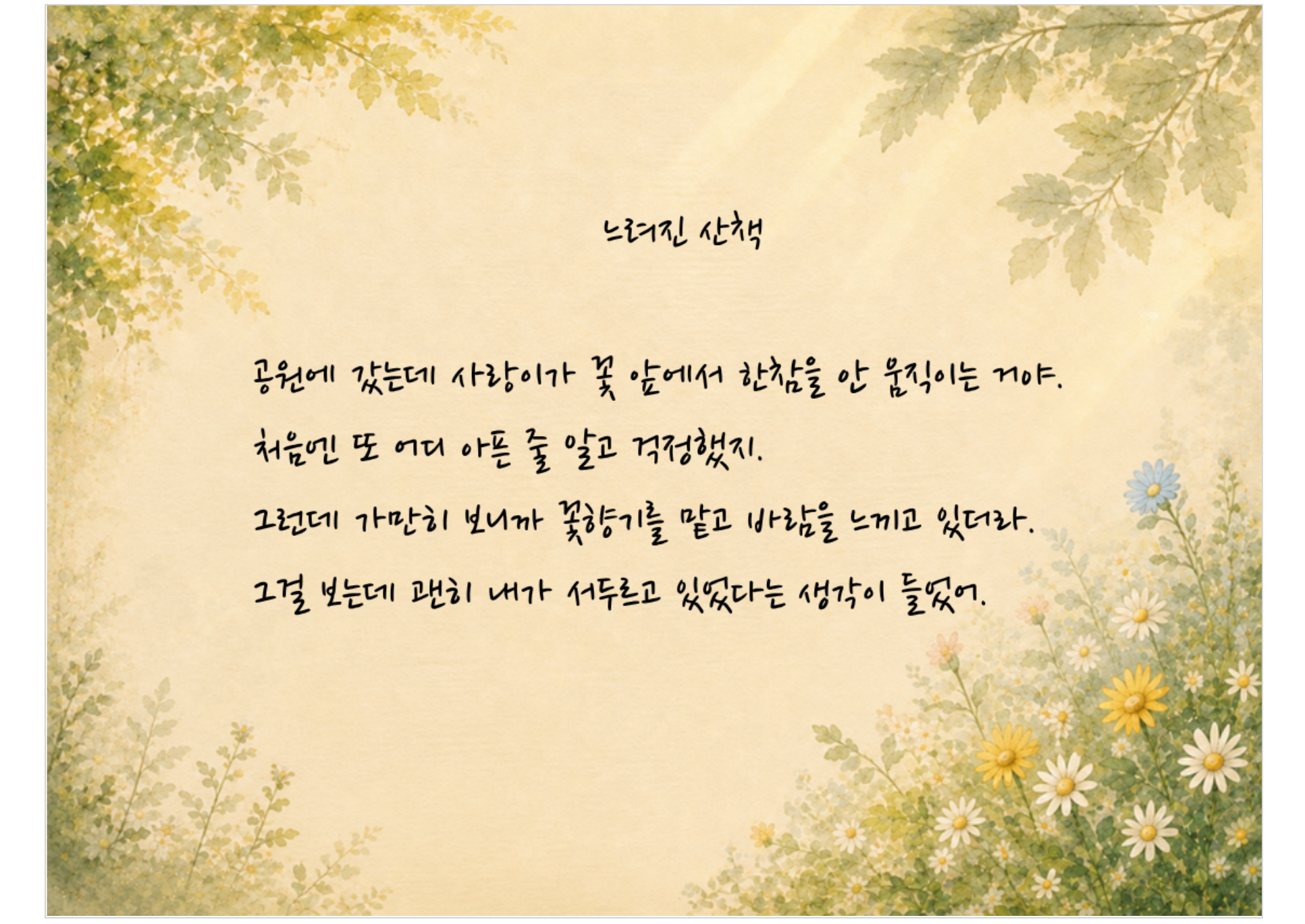
큰 수술을 해서 그런지 천천히 일어나더라.

예전처럼 막 뛰어오진 못했는데,

나 보면서 꼬리 흔들는 건 그대로였어.

그 모습 보니까 오늘은 그냥 사랑이 걸음에 맞춰 같이 걷고 싶더라.





느려진 산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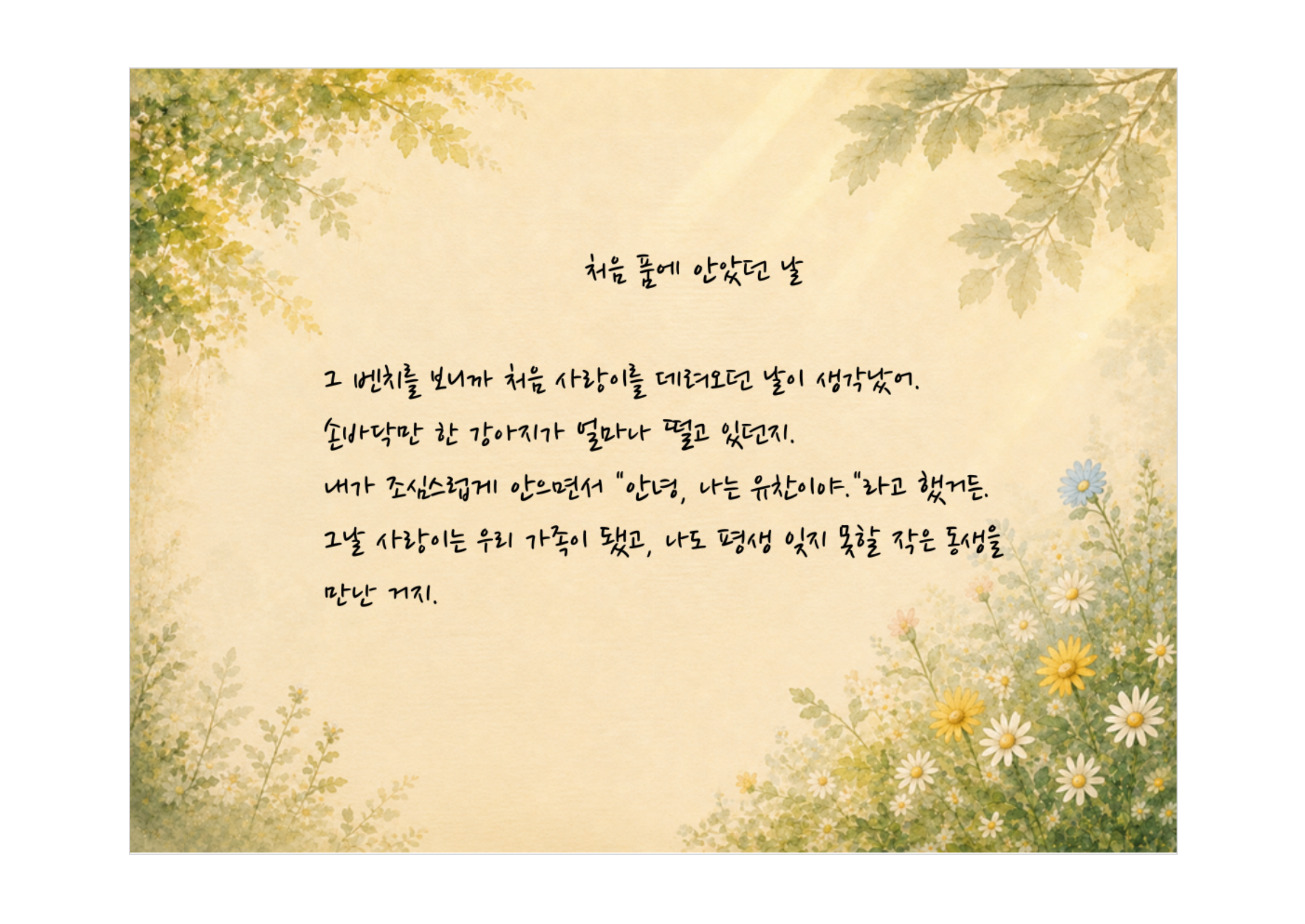
공원에 갔는데 사랑이가 꽃 앞에서 한참을 안 움직이는 거야.

처음엔 또 어디 아픈 줄 알고 걱정했지.

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꽃향기를 맡고 바람을 느끼고 있더라.

그걸 보는데 괜히 내가 서두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.





처음 품에 안았던 날

그 벤치를 보니까 처음 사랑을 데려오던 날이 생각났어.

손바닥만 한 강아지가 얼마나 떨고 있던지.

내가 조심스럽게 안으면서 "안녕, 나는 유찬이야."라고 했거든.

그날 사랑이는 우리 가족이 됐고, 나도 평생 잊지 못할 작은 동생을
만난 거지.